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29일 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관련주 약세로 인하여 하락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31.26p(0.37%) 떨어진 8,483.93에 마감. 씨티그룹과 JP 모건 등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주도. GM과 포드도 각각 1.6%, 3% 하락.

S&P 500 지수는 전장대비 3.38p(0.39%) 떨어진 869.42를 기록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.92p(1.30%) 하락한 1,510.32에 장을 마감.

이날 증시는 중동발 악재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소비위축 우려가 제기되었고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의 롬앤하스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.

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으로 인하여 이틀째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이 상승세를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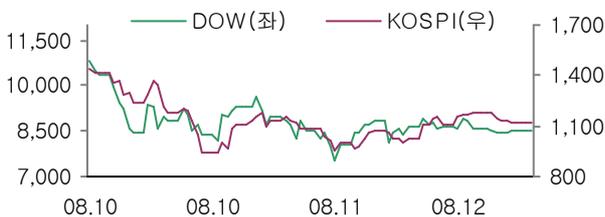
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지난 주말대비 2.31달러(6%) 오른 40.02 달러를 기록.

유가 급등이 소비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소매주들이 약세를 나타냄. 의류 유통업체인 탈벗이 10% 이상 하락하고 앤테일러가 12% 폭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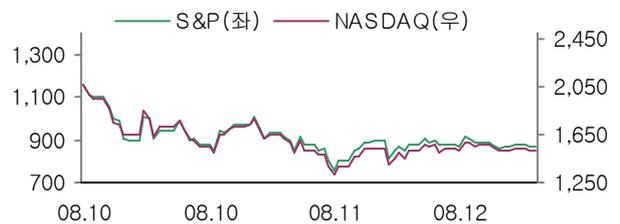
쿠웨이트가 다우케미컬과 진행하던 174억달러 합작법인 설립계획을 포기한다 밝혀 다우케미컬의 롬앤하스 인수가 불투명해지며 투자심리 위축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| 지수        | 종가       | 1일    | 5일    | 10일   | 1개월   | 3개월    | 12개월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DOW(좌)    | 8,483.93 | -0.37 | -0.42 | -0.94 | -3.91 | -23.86 | -36.53 |
| S&P(좌)    | 869.42   | -0.39 | -0.25 | 0.10  | -2.99 | -28.33 | -41.20 |
| NASDAQ(우) | 1,510.32 | -1.30 | -1.44 | 0.13  | -1.64 | -30.83 | -43.53 |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 
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